



# 南冥院報

제 26 호  
2002년 6월

THE NEWSLETTER FROM INSTITUTE OF NAMMYUNG STUDIES

發行人:金忠烈 / 發行處:社団法人 南冥學研究院 / 住所:慶南 晋州市 鳳谷洞 14-21 / 電話:(055)748-9147~8



▲ 연구위원 세미나 광경 2002. 5.11-12.(관련기사 4면)

## ◆ 目次 ◆

題字:金忠烈

- 3-4 / 시론 · 오월, 가정의 달을 생각하며 / 한상규
- 5-8 / 남명선생평전 - 제 1 장 생애 · 4. 산천재에 이는 대바람 소리(3) / 이상원
- 10-11 / 남명연원을 찾아서 · 황암 박제인 / 박병련
- 12-17 / 남명문학현장답사기 25 · 산해정(3) - 집도 아들도 없는 것이 중과 비슷하고 / 정우락
- 18-19 / 한약이야기(5) / 감기 / 홍승현
- 20-21 / 2002 선비문화축제 안내
- 9 / 연구원 간행도서 및 기념품 안내
- 22-23 / 남명학연구논총투고 · 심사 · 게재 규정
- 25 / 남명학과 유물 유품 고문헌 기증 또는 위탁관리 의뢰
- 25 / 남명학연구원 연구계획서 양식
- 26 / 회원 가입 신청서
- 4, 23, 24 / 소식
- 2, 27 / 광고



진주시 응급의료 지정 병원, 서울 심장병원 협력병원

# 진주고려병원

병원장: 이 양  
 의무원장: 김취열  
 진료부장: 류경열

▶응급실 24시간 개병진료◀ ▶교직원 공제보험 지정병원◀ ▶경찰관 및 가족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 병원◀

## ■ 전문 진료과목 및 특수 검사장비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과전문병원 소화기내과전문, 신장내과전문 내분비내과전문(당뇨) 심장내과전문, 류마치스내과전문</li> <li>척추전문병원 추간판탈출증, 척추분리증 전방전위증, 척추골절, 중앙 선천성병형</li> <li>관절전문병원 고관절 및 슬관절 결관절 수술 관절경, 인공관절 수술</li> </ul>	인공신장실	전자위십이지장내시경 진단 및 치료내시경
	요로결석클리닉(최첨단 3 세대체외충격파쇄석기)	유방암진단실
	척추운동센터(메덱스) 추간판탈출증 수술전후 재활운동	남성클리닉(비뇨기과)
	인공치아매식술(IMPLANT)	신생아실
건강증진센터(3층)	물리치료실센터(8층)	복강내시경수술(담낭절제술, 난소 및 자궁적출술)
MRI(1.5T)촬영실	심장초음파실	초음파진단실(간, 담낭, 비장, 신장, 췌장, 방광, 자궁난소, 갑상선, 유방종양, 기타전문검사)
C·T촬영실 (Spiral 전신컴퓨터실)	골밀도측정실 (골다공증진단)	

내과1: 류경열	정형외과2: 이상진	비뇨기과
내과2: 김봉근	산부인과: 임 송	마취과1: 김영익
내과3: 최영미	신경외과1: 김취열	마취과2: 정선욱
일반외과1: 이 양	신경외과2: 조봉수	이비인후과: 변종필
일반외과2: 문성열	치과: 박성희	해부병리과: 이혜정
일반외과3: 정민화	방사선과1: 정재동	산업의학과: 이영하
정형외과1: 이창훈	방사선과2: 강수진	소아과

대표전화: (055) 751-2500

건강증진센터 : (055) 751-2323  
752-8181

MIR 및 C-T 전화예약

상담예약: 751-2400 FAX: 757-4703

MRI 직통: 751-2575 C-T 직통: 751-2574

## 오월, 가정의 달을 생각하며

한 상 규 | 교육학박사 / 동주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 가정이야말로 지금같이 부패한 세상에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보호할 수 있고, 이기심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

---

오월은 가정의 달이다. 우리 전통사회의 가정은 부자 중심구조로 가계를 계승하고 남아 선호 사상을 강화 시켰다. 한편 우리의 가족 개념은 '집'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건물이나 장소, 소유를 나타내는 물량적인 개념보다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포함하는 집단적 혈연 개념이 강하였다. 여기에는 현존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조상들을 포함하는 정신적 문화적 의미가 있으므로 가풍이나 가문을 중시하는 풍조가 있다. 이것은 한국인의 삶이 현재에 비중을 두고 살기보다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짓는 시간적 해석에서 보는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인생관과도 관련이 있다. 즉 오늘날의 나는 어제의 조상과 내일의 후손을 염두에 두는 가족의식에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상을 섬기고(孝)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悌) 집안을 위해 노력한다. 이

러한 전통가정에서는 여성 교육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그 교육의 몫을 어머니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도록 한 것이다. 어머니의 역할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머니와 자녀의 교육적 인간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정에서 어머니야말로 아이에게는 가장 최초의 교사요 인간발달의 최초 모델이 되는 것이다. 19세기의 유명한 교육실천가인 스위스의 페스탈로찌(1746-1827)가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어머니는 하늘이 내리신 교사'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성애는 온 자연의 질서 가운데 가장 아늑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모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실은 단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배려 깊은 사랑입

니다. 사랑,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제일의 조건이라고 여깁니다.”

고 하면서 가정교육은 아동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어머니의 본성인 모성애에 의해 실현됨을 강조하면서 이런 가정교육의 정서적 분위기는 도덕적 종교적 감각으로 승화되고 융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할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모성애는 질서와 순서가 있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방임이나 지나친 간섭은 아이의 발달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조선 영조 때 사소절(士小節)을 지은 이덕무는, “아이가 스스로 사 고하고 통제하는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즉 마음가짐에 대한 습성에서 기상은 영리하되 경솔하지 않아야 하며, 순박하되 유약하지 않아야 하며, 되바라게



똑똑해서도 안되며 오직 묵직해서 장래성이 있어야 한다. 아이는 흔히 조급하고 가벼운 버릇이 있다. 어른들은 그것을 보는 대로 급하고 기어이 고치게 하는 것이 옳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지 않도록 잘못된 습관은 고쳐 주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버릇없는 아이가 많은데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서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훈계가 필요하다.

둘째, 가정은 순수한 감정이 길러지는 도덕교육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이 순수한 감정은 부자모자간에 사랑, 믿음, 소망이 있으므로 가능하다. 아이들의 일기를 보면 “엄마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내보고는 공부 안 한

다고 야단만 친다.” “엄마는 만날 놀러 다니면서 내보고는 집을 보라 한다.” “엄마는 만날 돈 소리만 한다.” 는 등의 글이 보인다. 아이가 보든 안보든 늘 도덕적 질서를 지켜야 한다.

셋째, 가정에서 기초교육이 다져져야 한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읽고, 쓰고, 셈하는 기초정도를 가르침으로써 모성애를 발휘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요즘은 신세대 어머니들은 아이의 모든 교육을 학원과 유치원에만 의존하면서 어머니의 임무를 충실히 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사고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가정이야말로 지금같이 부패한 세상에서 아이의 순수한 마

음을 보호할 수 있고, 이기심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다. 그 역할을 어머니가 맡는다면 도야된 인간형성이 되어서 사회개혁이 이루어진다. 사회개혁을 정치인에게 맡기거나 사회단체에 의존하기 이전에 가정에서 안방교육을 통하여 그 터전을 길러야 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페스탈로찌가 말한 “아직 녹지 않은 땅에 묘목을 심고, 홍수가 난 강물에 아이를 업어 건네주는 것을 어머니는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다 자란 나무를 베어다 목재로 쓰고 홍수로 사람이 빠져 죽어야 다리를 놓는다.” 고 한 말을 되새기며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내일을 맡겨보고 싶다. **敬義**

표지사진 - 연구위원 세미나 개최

2002년도 연구위원 세미나가 5월 11, 12일 양일간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한별농원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서는 경상대학 조구호 선생의 愁城誌 研究, 강남대학 임현규 교수의 朱子學과 南冥의 脾胃心性論에 대한 고찰, 진주전문대 송준식 교수의 東岡 김우웅의 帝王教育論이란 논문이 발표되고, 토론과 종합토론이 있었다. 세미나에는 원장, 이사장, 부이사장과 상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등 16명이 참석하였다.



[南冥先生評傳]- 제 1 장 생애(生涯)

## 4. 산천재(山天齋)에 이르는 대바람 소리(3)

이 상 원(李商元) 본원 연구위원

### ■ 일두 정여창 선생을 배알하고

이 해 3월에 남계(藍溪)에 가서 일두(一蠹) 정여창 선생의 사당에 가서 배알하고 여러 제자들의 강론을 들었다. 남명은 각재 하항, 영무성 하응도, 조계 유종지, 백곡 진극경을 데리고 남계에 갔는데, 개암 강익, 역양 정유명, 매촌 정복현, 남계 임희무와 인근의 많은 선비가 선생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모여들어 강학하였다. 이어서 일두 정선생에게 화제가 미치자, 남명이 말하길, “(일두선생은) 학문이 깊고 독실하여 한 점의 티끌도 없었는데 화를 면하지 못한 것이 천운이었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남명은 일두 선생에 대하여 출처의 애석함을 지적하고 있다. 평소 남명은 일두의 독실 강건한 학문과 행실을 깊이 존모하였으나 벼슬길에 나서서 억울한 죽음을 맞음으로써 그 출처의 엄중함을 지키지 못함을 못내 한탄하였으며, 이는 후학으로서 선생 자신의 출처를 더욱 단정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여창(鄭汝昌;1450-1504)은 점필재 김종직의 문인으로 한훤당 김굉필, 탁영 김일손, 추강 남효온 등과 도의지교로 사귀었는데, 그의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사초(史草)에 실린 것과 관련 연산군4년(1498) 무오사화에 얽혀 함경도 종성으로 귀양갔다가 연산군 10년에 유배지에서 억울하게 죽었다. 그는 뒤에 억울함이 풀려, 문묘에 배향되었는데 조광조, 김굉필, 이황, 이언적과 함께 동방오현으로 추존받았다. 그는 스스로 낮추어 한갓 쯤벌레라 의탁하여 ‘일두’라

자호(自號)하고 내적 수양공부에 충실하였으며 이를 몸소 실천하였다. 행실은 독실하였고 또 학문은 매우 넓고 깊어서 당대의 명망있는 학자로 추앙받았다. 『용학주소(庸學注疏)』 등 많은 저술을 하였으나 시화가 있자 부인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이를 모두 불에 태워버려, 지금 남아있는 저술의 편린은 다만 『일두선생실기』를 통하여 가늠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

### ■ 갈천 임훈의 여막에서 조문

갈천(葛川) 임훈(林薰;1500-1584)의 여막에서 조문하였다.



▲일두 정여창선생 사당비  
(문화재자료 239호, 경남 함양군안의면 풍산리 805-1소재)  
용문서원의 자리에 남아 있는 일두 정여창(1450~1504)의 사당비이다. 비문은 갈천 임훈이 글을 짓고, 석곡 성평년이 글씨를 썼다. 선조 16년(1583)년에 이 비를 세웠다.

● [南冥先生評傳] - 제 1 장 생애(生涯)

갈천은 자가 중성(仲成)이고 갈천은 호이다. 은진인(恩津人)인데 안음(安陰) 갈계에 살면서 남명과 종유하였다. 『갈천집(葛川集)』이 남아있다. 갈천은 이즈음 부친상을 당하여 상례를 매우 지극하게 치르고 예순이 넘은 노령임에도 여막에서 시묘살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명이 이를 위문차 찾아온 것이다. 이 때에 남명은 이미 글을 보내어 예에 맞도록 하기를 권했고, 일부러 또 찾아 위문한 것이다. 선생은 말하길, “중성의 덕기(德器)는 정당(政堂)의 한 자리에 앉아서 들뜨고 텅빈 풍속을 진정하기에 합당하다.” 라고 하였다. 이번 걸음에 동행한 제자 중에서 누가 말하길, “안음 삼동(三洞)의 산수가 맑고 아름다우니 한번 구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선생은, “이번 길은 갈천을 위문하기 위해 온 길이니 훗날 나와 함께 둘러보고 놀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선생이 일상 행사에 얼마나 처신을 끈게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 동강 김우옹이 와서 배우다.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顛; 1540-1603)이 와서 배웠다.

동강의 자는 숙부(肅夫)이고, 동강(東岡)은 호이며, 본관은 의성(義城)으로 성주(星州)에 거주하였다. 그는 중종 35년(1540) 성주 사월곡(沙月谷)에서 칠봉(七峯) 김희삼(金希參)과 청주 괘씨

사이에 4남 1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문집으로 『동강집(東岡集)』이 남아있다. 15세 때 성주교수로 있던 남명의 문인 덕계 오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24세 되던 이 해 겨울에 남명을 찾아 뵈고 제자가 되기를 청하였다.

이 때 선생은 김우옹에게 말하기를, “침잠한 사람은 모름지기 강기(剛氣)로써 일을 처리해야 한다. 천지의 기운은 균세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막론하고 모두 뚫을 수 있는 것이다. 자네는 역량이 열고 모자라니 모름지기 남이 하나를 하면 자기는 열 번을 하고, 남이 열 번을 하여 잘하게 되면 자기는 백 번을 하여 잘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쏟아야만 거의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여, 독실 강건한 공부를 당부하였다. 또 말하기를, “내 몸소 행하는 처음에는 마치 금과 옥이 티끌만 한 더러움도 입지 않는 듯이 해야 하며, 또 대장부의 행동거지는 무점기가 산악 같아서 만 길이나 깎아선 듯 하다가 때가 오면 움직여야 바야흐로 허다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차고 있던 성성자(惺惺子) 방울을 끌러주면서, “이 물건은 맑은 소리로 사람을 깨우쳐줄 줄 안다. 차고 보면 매우 좋은 줄 알 것이다. 내 귀중한 보배로서 자네에게 주는 것이니 자네가 능히 이것을 지니겠는가?” 하자, 동강이 묻기를, “이는 옛 사람들이 옥을 차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니, 선생이 말하길, “실로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가 더욱 절실하니 이연평(李延平)도

동강 김우옹 신도비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 산 21-1번지에 있는 이 비는 동강(東岡) 김우옹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경종 3년(1723)에 세운 신도비이다.

이 비는 갈암(葛菴) 이현일(李玄逸)이 짓고 미수 허목(許穆)이 썼다.

1991년 5월 1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60호로 지정되었다.



일찍이 찾던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뇌천(雷天)’이란 두 글자를 써 주면서 ‘대장(大壯)’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였다. 요컨대 항상 방울의 맑은 소리를 듣고, 흐트러지는 마음을 불러 깨우치고 자신을 반성하여 매사를 경계하도록 하였고, 뇌천은 주역 대장괘의 뜻을 취한 것으로 성찰하고 극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힘쓸 것을 당부한 것이다.

동강은 남명의 외손서가 되는데, 남명의 딸이 대대로 상산(商山) 김씨의 세장지인 단성 법물리에 살던 만호(萬戶) 김행에게 시집을 가 딸을

남명의 경의학풍을 오롯이 수용한 수문(首門)이었다.

선조가 경연(經筵)에서 동강에게 묻기를, “그대는 일찍이 조식의 문하에서 수업을 받았으니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대의 학문하는 것이 독실하니 마땅히 평일에 공부하는 도를 진언하라.” 하였다. 이에 대답하기를, “신은 실로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모(某:남명)의 가르친 바를 말하자면 흠어지는 마음을 모으는 것(求放心)을 근본을 삼고, 또 경(敬)을 주장함으로써 흠어진 마음을 찾는 요령을 터득한 것

선조가 경연(經筵)에서 동강에게 묻기를, “그대는 일찍이 조식의 문하에서 수업을 받았으니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대의 학문하는 것이 독실하니 마땅히 평일에 공부하는 도를 진언하라.” 하였다.

이에 대답하기를, “ 모(某:남명)의 가르친 바를 말하자면 흠어지는 마음을 모으는 것(求放心)을 근본을 삼고, 또 경(敬)을 주장함으로써 흠어진 마음을 찾는 요령을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두었는데, 칠봉과 친분이 있던 남명이 동강의 사람됨을 알고 외손녀를 시집보냈다. 27세 때는 한양에 과거보러 갔다가 퇴계선생에게 나아가 잠시 학문을 익혔으며, 어머니께 문안드리러 함양으로 내려왔는데, 이때 만형 이계(伊溪) 김우홍(金宇弘; 1522-1590)이 함양군수로 있었다. 김우홍은 군수로 있으면서 평소 교분이 두터운 인근의 선비 개암 강의 등과 남계서원의 창건에 힘을 쏟았는데, 동강은 여름에 남계서원에서 오건, 노진, 강의 등과 학문을 강독하였다. 이 무렵 「천군전(天君傳)」을 지었다. 동강은 남명의 「신명사도」와 「신명사명」을 보고, 선생에게서 「천군전」을 짓도록 명받았다. 남명 경의 사상의 요체가 함축된 신명사도와 명을 알기 쉽게 심성(心性)을 의인화해 천군으로 의탁하여, 나라를 잃은 천군의 군대가 경과 의로써 서로 힘을 모아 마침내 싸워 이긴다는 내용을 가전체 문장으로 창작하여 남명의 사상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동강은 남명과 퇴계 양문에 들었으나 두 선생의 가르침을 각각 계발하였고, 특히

이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동강은 평생 여러 번 벼슬을 제수받았으나 변변히 소를 올려 거절하였는데, 이는 스승 남명의 엄한 출처관에 깊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번은 승문원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가 되어 부임하자 선배들이 면신례(免新禮: 신임 벼슬아치가 전부터 있는 관원들에게 하는 신고식)를 행하려고 하자, 이는 선비들이 할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한강에 이르러 ‘남풍사(南風辭)’를 지어 뜻을 밝히고 돌아왔다. 이 일로 그 때까지 남아 있던 폐습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동강은 불의에 대한 강직한 면모를 보이는데, 이는 선생의 기절(氣節)을 닮았다고 할 수 있다.

50세 때(1589)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정여립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남명의 문하에서 함께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함경도 회령부에 유배당하였다. 삼년 뒤 임진년(1592) 5월에 적소에서 풀려나 의주 행재소로 가 승문원제조 벼슬을 제수받고, 이어서 병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1월에는 임금이 있는 의주에 도착하여 부호군의 벼슬을 제

수받고 왜적을 막을 방책인 기무칠조(機務七條)를 임금에게 올렸다. 임란 중 임금을 호종하고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일 등 난세를 당하여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였다. 54세 때(1593) 명의 접빈사가 되고, 이어 동지중추부사로 명의 문위사가 되었으며, 왕의 친서를 명의 장수 이여송에게 전하였다. 그 해 상호군을 거쳐 동지의금부사가 되어 왕을 호종하고 서울로 환도하여, 한성부좌윤, 혜민서제조 등을 역임하였다. 55세 때(1594) 대사성이 되고 이어서 대사헌, 이조참판을 역임하였으며 60세 때(1599) 병으로 사직하고 인천에서 소요정(逍遙亭)을 짓고 은거하였다. 1571년 12월, 겨울에 스승 남명이 등창으로 갑자기 병이 깊어지자, 여러 달 동안 덕산에서 직접 간호하였고, 선조 5년(1572) 2월 8일,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렀으며, 선생의 「언행록」과 「행장」을 지었다.

▣ 송암 이로가 와서 배우다.

송암(松巖) 이로(李魯; 1544-1598)가 와서 배웠다. 공의 자는 여유(汝唯)이고, 송암(松巖)은 호이다. 본관은 고성(固城)으로 의령(宜寧)에 살았다. 중종 39년(1544) 의령 부곡리(孚谷里)에서 인의공(引儀公) 효번(孝範)의 아들로 태어났다. 『송암집(松巖集)』, 『사성강목(四姓綱目)』, 『용사일기(龍蛇日記)』, 『문수지(文殊志)』가 남아있다. 13세 때 경사(經史)에 두루 통하였고, 17세 때(1560) 부친의 명으로 당시 거제에 귀향 온 조정암(趙靜菴) 문인인 유현(游軒) 정황(丁煥; 1512-1560)에게서 글을 배웠다. 정황은 1547년 양재역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곤양으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거제로 다시 이배되었는데, 친분이 강직하고 효제충신을 생활의 신조로 삼았던 인물이었다. 19세 때(1562) 아우 축암(畜庵)보(普), 백암(柏庵)지(旨)와 함께 수우당 최영경의 문하에서 글을 읽고, 이듬해 두 아우와 함께 덕산으로 남명선생을 찾아와 수업을 받았다. 선생이 한 번 보고 마음으로 허락하여 정성껏 가르쳤다.

공은 임진왜란에 초유사(招諭使) 학봉 김성일

(金誠一)을 도와 의병을 일으키고, 많은 공을 세웠으며, 이 기간에 일어난 전란의 전말을 『용사일기』에 담았다. 임진년(1592년), 49세 때 공은 서울에서, 왜구가 동래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소헌(大笑軒) 조종도(趙宗道)와 고향으로 돌아가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5월 4일, 고향으로 내려오는 도중 함양에서 초유사 김성일을 만났다. 이 때부터 그를 따라 거병을 같이 하여, 10일에는 산음(山陰)에 도착하여 소모관(召募官) 직책을 맡아 삼가, 단성으로 가 의병을 모집하여 창의하고, 삼가로부터 단성을 거쳐 진주에 도착하였다. 진주에서 초유사와 왜적을 막을 방책을 마련하고, 인근 의령 합천을 돌며 의병을 격려하는 등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관찰사 김수(金睟)가 광재우(郭再祐)를 무고하자 학봉과 상소를 올려 그를 변호하였다. 7월에 왜적이 진주에 쳐들어오자 초유사를 따라 군사들을 독려하였다. 공은 김성일의 추천으로 성군관 전직에 제수되었으며, 8월에 학봉이 좌도 관찰사로 옮겨가자, 초계에서 송별하고 다음날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9월에 학봉이 우도 관찰사로 다시 오자 지리산에서 나와 산음에서 오장(吳長)과 함께 그를 맞이하였다. 10월에 창원, 부산, 김해에 주둔한 왜적이 진주에서의 패배를 설욕하고자 진격해 오자 공은 학봉을 따라 길목인 의령으로 가 왜적을 무찔렀다. 이 때 판관 김시민(金時敏)이 승진하여 진주목사가 되어 진주성을 사수하고 있었는데, 이듬해 초유사 김성일이 계사년 진주성 전투에서 세상을 떠났다. 공은 위독한 학봉의 곁에서 주야로 간호하였고, 그가 죽자, 시신을 염한 뒤 지리산에 가매장하여 7개월이 지난 뒤 고향에 안장하였다. **敬異**

## 남명학연구원출판부 간행도서 및 기념품 판매 안내

남명학연구원출판부에서 발행한 도서 및 기념품의 판매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남명학연구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 도서



#### ● 남명학과 정치철학 연구

설석규 지음 / 양장 360쪽  
정가 17,000원 → 판매가 14,000원  
· 남명학과의 정치사상을 공론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책



#### ● 남명설화뭉치

정우락 지음 / 302쪽  
정가 10,000원 → 판매가 8,000원  
· 남명에 관한 설화를 유형별로 정리 해설한 책



#### ● 남명선생 문인자료집

김경수·사재명 지음 / 338쪽  
정가 12,000원 → 판매가 10,000원  
· 남명선생의 문인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책



#### ● 남명집 4종

조 식 지음  
정가 35,000원 → 판매가 30,000원  
· 남명집의 여러 판본 중에서 중요한 판본 4종을 영인한 책



#### ● 남명학파연구

오이환 지음 / 양장 상하 2책  
정가 30,000원 → 판매가 25,000원  
· 남명학파에 대한 연구를 남명집의 판본 변천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서술한 책

### 2. 기념품



#### ● 사적지안내 비디오 테이프 및 CD

각 7,000원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제작

#### ● KBS-TV 방영 「동방의 빛-남명조식」

· 방영일 : 2001년 10월 20일  
판매가 7,000원

#### ● MBC-TV 방영 「오백년의 대화-남명조식」

· 방영일 : 2001년 8월 28일  
판매가 7,000원

#### ● MBC-TV 방영 「행복한 책읽기-남명조식과 퇴계이황의 학문세계」

· 방영일 : 2001년 12월 4일  
판매가 8,000원



#### ● 성성자

대·중·소 및 소형 은방울 등 4종

※ 구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055-748-9147)으로 연락하시거나 인터넷 <http://www.nammyung.org>의 도서 안내나 <http://www.dmplus.co.kr>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황암(篁嶽) 박제인(朴齊仁)

박 병 련(朴丙鍊)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본원 상임연구원

황암 박제인(篁嶽 朴齊仁)은 본관이 경주인데, 건원릉 참봉(建元陵參奉)을 지낸 모암 박희삼(茅庵 朴希參)을 아버지로,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강희백(姜淮伯)의 증손자인 부사직(副司直) 강신범(姜信範)의 딸을 모친으로 가정 병신(1536: 중종 31년) 12월 29일 함안군 평광리(平廣里)의 집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후중(厚重)한 자품(資稟)이 드러나 장자(長者)의 풍도(風度)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독서를 하면서는 안자 사물잠(顔子四勿箴)과 주자 십훈(朱子十訓)을 벽에다 걸어 놓고 보면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범상하지 않은 면모를 나타내었다. 특히 성낸 기색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문밖으로 나가지 않을 정도로 종일을 숙연히 학문에 침잠했는데 밤이 이슬할 때까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급기야 남명선생의 학문과 도덕을 흠모하여 문하에 출입하게 되었는데 경의(敬義)의 요체

를 가르침 받았을 뿐 아니라 문하의 준걸(俊傑)들과 사귀면서 깊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때 교유한 대표적 인물들로는 수우당 최영경(守愚堂 崔永慶), 각재 하항(覺齋 河沆)이 있었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서 특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인물들은 대소헌 조종도(大笑軒 趙宗道)와 송암 김면(松庵 金沔), 황곡 이칭(篁谷 李稱), 모촌 이정(茅村 李滯) 등이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황암은 조종도, 이칭, 이정등과 함께 군사를 모아 당시 함안군수로 초유사(招諭使) 막하(幕下)의 중위장(中衛將)이었던 류승인(柳崇仁)에게 보내기도 했다.

황암은 거처하는 집의 당호(堂號)를 ‘정적(靜寂)’으로 하고 바위 위에 대를 심은 다음 이때 비로소 스스로의 호를 황암으로 고치고 학문에 더욱 정진하였는데, 이전의 호는 ‘정묵재(靜默齋)’였다. 이로서 미루어 보면 그의 학문상의 득력(得力)함이 ‘정(靜)’으로부

터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황암의 이 거처에 찾아와서 지은 각재 하항의 시가 유명하다.

황암은 당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문자를 깨치게 하는데 치우쳐서 기품의 막힘을 열어 주는 교육을 등한시하는 풍조는 결국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결국 ‘도에 어긋나고 덕을 무너뜨리는 곳(反道悖德之歸)’으로 귀착하게 하여 유교의 올바른 가르침이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의 소학공부를 예로 들면서 ‘물 뿌리고 마당 쓸며 응대하는 절차와 앉고 서고 걷고 종종걸음치는 법도며, 절하고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灑掃應對 坐立步趨 揖讓進退)’ 것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몸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그 본원을 함양하는(制其外以養其中) 하학상달(下學上達)의 공부를 특히 강조하였다. 이는 스승인 남명

의 공부론(工夫論)을 철저히 이어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의 독서법은 한자 한자의 뜻도 깊이 천착하는 정독(精讀)의 방법을 통해 마음에 터득될 때까지 완색(玩索)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방법은 ‘입으로만 읽고 의리에 투철히 통하지 못하는’ 독서법을 배격하는 것으로 이 또한 한훤당에서 남명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 학맥의 독특한 독서법이 었다. 동문(同門)의 대유(大儒) 한강 정구(寒岡 鄭述)가 함안군수로 부임하여 황암을 만나본 뒤 그 침중(沈重)함에 감복하여 “도덕과 도량이 넓고 깨끗함은 내가 미치지 못할 바(德量弘毅非吾所及)” 라 하면서 ‘은덕유조(隱德有操)’ 로 평가하였고, 함께 살았던 이웃의 문인 학자들이 ‘집지산천조자입각(執贄山天早自立脚)’ (李明호), ‘두류부급각근초(頭流負笈脚跟初)’ (成好正), ‘문풍산해명추향(聞風山海明趨向)’ (趙任道)이라고 하였듯이 그는 남명의 사상을 철저히 이어받아 준행(遵行)한 학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학덕이 점차 널리 알려지자 갑오년(1594)에 천거를 통해 태릉참봉(泰陵參奉)이 제수(除授)되고 곧 이어 왕자사부(王子師傅)의 벼슬자리가 잇달아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기해년(1599)에 송라도 찰방(松羅道察

訪)이 제수되자 나아갔다가 버리고 돌아왔으며, 임인년(1602)에는 다시 시직(侍直)벼슬이 내렸으나 취임치 않았다. 그 해 겨울 다시 임금이 왕자사부로 임명하여 불러 “왕자가 무슨 책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하고 묻자 황암이 대학과 대학소주(大學小註)를 강조하였는데 임금이 왕자가 밝은 스승을 얻었다고 흠족해 하였다. 을사년(1605) 가을에 형조좌랑으로 옮겨졌고 겨울에 군위현감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전원으로 돌아갈 뜻을 굳히고 있어서 왕자에게 주자훈몽절구(朱子訓蒙絕句)를 남겨 권면하였다. 왕자사부로 두 번이나 부름을 받았던 것에서 보듯이 그는 교육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신증양몽대훈지(新增養蒙大訓志)>, <가훈(家訓)> 그리고 <서상훈몽절구 왕자인이현규(書上訓蒙絕句于王子因以獻規)>는 그의 교육사상 뿐 아니라 남명학파의 교육관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며, 남명선생을 향사(享祀)하는 용암서원(龍巖書院) 창건과 임란에 불타버린 덕천서원 중건을 크게 기뻐하고 있는 데서도 그의 교육적 열의를 짐작할 수 있다. 대표적 문인으로는 성호정(成好淨), 서호정(成好正), 정효생(鄭孝生), 한몽일(韓夢逸), 한몽삼(韓夢參), 이행주(李行周) 등이 있다.

그의 인품은 “충담홍의 혼 후확실(冲澹弘毅 渾厚確實)”

(澗松 趙任道), “패복경의 지독심전(佩服敬義 志篤心專)” (門人 鄭孝生), “덕기천성 침묵후후(德器天成 沈默渾厚)” (梅竹軒 李明호)로 표현하고 있듯이 일견 스스로의 수양에 모든 것을 걸고 침잠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당시의 시폐(時弊)를 극론(極論)하는 소장(疏章)을 만들어 상소하기 직전에 수우당이 소초(疏草)를 보고 놀라 만류한 일이 있을 정도로 과단(果斷)한 면모를 갖고 있기도 했다. 무오년(1618) 11월 5일에 거처하던 집의 정침(正寢)에서 운명했는데 향년 83세였다.

향리의 후배로서 곁에서 황암의 일상(日常)을 지켜 본 이매죽헌이 만사(輓詞)에서 “산천재(山天齋) 문 앞에 공경히 서서 일찍이 남명선생을 스승으로 모셨더라. 경의(敬義)의 가르침을 오로지 하여 그 쌓인 공이 높았는데(立雪山天早得師 敬義學專功有積)” 라고 한 구절이 있는데, 이 글은 운명한 당시의 글로서 황암의 면모를 가장 방불(髣髴)하게 묘사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노파 이흠(蘆坡 李屹)이 행장을 짓고 여현 장현광(旅軒 張顯光)이 묘갈명을 지었다. 현종 신축년에 도림서원(道林書院)에서 향사하다가 현종 병오년에 평천서원(平川書院)으로 이봉(移奉)하였다. 문집으로는 『황암집(篋品集)』이 있는데, 만성 박치복(晩醒 朴致馥)이 서문했다. 歌義



<남명문학 현장 답사기(25) - 산해정(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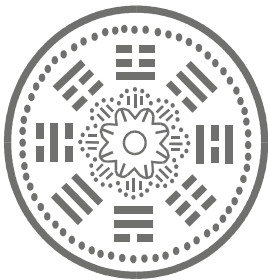
## 집도 아들도 없는 것이 중과 비슷하고

정 우 락영산대 교수, 본원 상임연구위원.

지금 우리는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다 그 다리가 무너져 한강에 떨어져죽고, 어떤 사람은 애인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하여 백화점에 갔다가 그 백화점이 무너져 건물더미에 깔려 죽고, 어떤 사람은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등교하다가 지하에서 갑자기 가스가 폭발하여 화염에 휩싸여 죽었다. 죽고, 죽고 또 죽었다. 그야말로 삼경(三更)에 만난 액(厄)이며, 쉼 밭에 곱췌 격이며,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다. 연일 일간신문의 1면에 등장하는 대형사고들, 이제 우리는 거기에도 감각이 무뎌져서 웬만한 사고에는 놀라지도 않는다. 내 옆을 지나가는 저 미친 자동차가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르고, 누가 나의 카드를 빼앗기 위하여 칼을 들이댈지 모르며,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건물이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닥쳐오는 재난에는 옥석(玉石)이 없다. 옥과 돌은 함께 타서 착하게 산 넘이나 나쁘게 산 넘이나 모두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문명의 그늘진 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음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2002년 4월 15일, 김해시 신어산 부근 돛대산(해발 237m)에서 중국 민항기 추락, 탑승자 166명 가운데 119명 사망, 9명 실종, 39명 생존! 중국 국제항공공사 소속 CCA-129편 보잉 767 항공기가 돛대산에 떨어지는 엄청난 재난사고였다. 사고 비행기는 15일 오전 8시 40분 중국 베이징을 떠나 오전 11시 35분쯤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김해공항의 기상악화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다가 다시 김해공항으로 돌아와 착륙을 시도, 오전 11시 45분쯤 추락했다. 이날 공군은 바람방향이 바다쪽에서 육지쪽으로 불었기 때문에 사고 비행기가 착륙지점을 잡기 위해 활주로 서쪽을 이용, 신어산으로 선회하다가 돛대산 정상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신어산은 남명의 산해정이 있는 곳이며, 돛대산은 조차산(曹次山) 혹은 차산등(次山嶺)이라고도 하는데 남명이 아들 차산을 뭇 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 김해부읍지(金海府



邑誌)에 '조차산은 부의 동쪽 20리에 있다. 차산은 조남명선생의 아들 이름인데 이 산에 묻었다. 이로 인하여 이름을 삼아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때 남명의 나이 44세였고 차산은 9세였다. 차산의 죽음과 관련한 문헌설화부터 살펴보자. 남명집 [편년]에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선생이 44세 되던 해 6월에 아들 차산을 잃었다. 차산은 어려서 뛰어나게 총명하였다. 일찍이 기르는 개가 먹이를 다투어 으르렁대는 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옛날 진씨(陳氏)의 개는 백 마리가 한 울안에 살았는데 우리 집 개는 그렇지 못하니 실로 마음에 부끄럽구나." 라고 하였다.

또한 산해정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하루는 초헌을 타고 길을 지나가는 행차가 있어 매우 거창하였다. 함께 배우던 아이들은 모두 다투어 구경하고 부러워했지만 차산은 홀로 태연히 글을 읽으며 조용히 말했다. "장부의 할 일이 여찌 거기에 있겠는가?" 선생이 기특하게 여겨 사랑하였으나 불행히도 일찍 죽었다.

이 이야기는 전아한 유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산이 지녔음을 보여준다. 즉 자기집 개들이 먹이를 다투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다든가, 출세하는 것에 자신의 뜻이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 등이 그것이다. 특히 남명이 이같은 아들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적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은 남명에게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아홉 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을 것이다. 남명 역시 아홉 살 때 병으로 위독한 적이 있었으니, 아홉 살이 남명부자에게는 커다란 고비였다. 남명은 그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나, 차산은 그렇지 못했다. 차산이 죽자 남명은 다음과 같은 슬픈 시를 짓기도 하고, 뒷날 조카를 매개로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기도 했다.

(가)  
집도 없고 아들도 없는 게 중과 비슷하고,  
뿌리도 꼭지도 없는 이내 몸 구름 같도다.  
한 평생 보내자니 어쩔 수 없는 일,

여생을 돌아보니 머리가 흰 눈처럼 어지럽도다.

靡室靡兒儼似我，無根無蒂我如雲。  
送了一生無可奈，餘年回首雪紛紛。

(나)  
수많은 근심에도 눈은 멀지 않았지만,  
만사엔 조금도 관심 없대네.  
생질이 천리 밖으로 떠난지,  
열두 성상의 세월이 흘렀구나.  
곳은 장마에 석달 동안이나 어둡고,  
외로운 꿈은 오경에 쓸쓸하구나.  
방장산(方丈山)을 혹 저바리지는 않았는가?  
소식 전하기는 다시 어렵겠구나.

百憂明未喪 萬事寸無關  
姊侏一千里 星霜十二還  
窮靈三月晦 孤夢五更寒  
方丈如毋負 音書亦復難

(가)는 아들을 잃고 쓴 [상자(喪子)]이다. 여기서 남명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의 슬픈 심경을 중과 구름에 견주고 있다. 집도 아들도 없는 것이 중과 비슷하다고 했다. 김해에서 처가살이를 하였기 때문이었고, 또 차산이 죽었기 때문이었다. 외로운 삶에 대한 단면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구름을 떠올리며 더욱 절망한다. 남명은 장자(莊子)처럼 '한 조각 구름이 뭉게 뭉게 일어나는 것은 나는 것(生)이요, 한 구름이 멀어지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의 죽음은 그에게 엄청난 절망감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절망 속에서 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데 있었다. 그 고뇌에 머리카락이 흰 눈처럼 어지럽다고 하면서 남아 있는 암흑같은 생애를 돌아본다. 우리는 여기서 의식을 칼날같이 곧추 세운 대사상가로서의 남명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남명을 만나게 된다.

(나)는 조카 이준민(李俊民, 1524-1590)에게 준 [기자수질(寄子修侄)]이다. 이준민은 남명의 자형인 이공량의 아들인데 자수(子修)는 그의 자다. 이 작품의 수련에서 보듯이 자하(子夏)가 아들을 잃고 너무 슬피 울어 눈이 멀었다는 고사를 떠올리며, 아들을 잃고 난 다음의 여러 가지

고난을 말하고 있다. 이는 바로 이준민을 통해 죽은 차산을 생각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생질은 천리밖에 있으나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죽은 차산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안부를 물을 수 없다. 남명은 이 때문에 '생질이 천리 밖으로 떠난 지, 열두 성상의 세월이 흘렀구나'라고 노래했을 것이다. 남명은 조카 이준민을 특별히 사랑했다. 이준민은 원래 진주에서 태어났지만 문과급제 후 벼슬살이를 위해 서울로 이사한다. 이 때문에 이준민은 서울과 진주사이를 오가며 남명에게 서울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성운의 편지를 전하거나([與成大谷書]), 김우옹의 벼슬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 것([與吳御史書])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남명은 또한 이준민에게 옛 병풍에 글을 써주기도 하고([題古屏贈子修姪]), 두 번 과거에 급제하여 거듭 승지가 된 것을 칭찬하기도 하였으며([永慕堂記]), 인편이 어어지지 않아 소식 전할 수 없는 것을 몹시 안타까와([與吳子強書]) 하기도 했다. 특히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지나친 효행으로 병이나자 생질의 병을 걱정([又答子強書]) 하였다. '자수(子修)의 증세가 오래도록 낫지 않고 있다는데, 거리가 워낙 멀다보니 더한지 덜한지 계속 들을 수 없어, 단지 날마다 근심 속에 탄식만 할 따름입니다.'라면서 오건(吳健, 1521-1574)에게 토로한 것에서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지리산 유람길에서 진주의 말고개(馬峴)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뵈러 가는 이준민을 만나기도 하고([遊頭流錄]), 이준민의 사위 조원(趙瑗, 1544-?)이 장원을 하자 칼자루에 시를 써 주기도 하는([書劒柄贈趙壯元瑗]) 등 생질과 외숙의 따뜻한 정이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 예나 지금이 다르지 않다. 자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며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했다. 김광균은 문학(1946. 4)이라는 잡지에 [은수저]를 발표하며, 저녁 밥상에 아이는 없고 아이가 앉던 방식에 한 쌍의 은수저만 있다고 하면서 뜨거운 아버지의 정을 토로했다. 다음은 김광균의 [은수저] 전문이다.



▲ 김광균

경기 개성 출생. 송도상고 졸업. 《중앙일보》에 시 《가는 누님》(1926)을 발표한 뒤 《동아일보》에 시 《병》(1929) 《야경차(夜警車)》(1930) 등을 발표했으며, 《시인부락》(1936) 동인, 《자오선(子午線)》(1937) 동인으로 활동했다. T.E. 홀, E.파운드, T.S.엘리엇 등 영국 주지주의 시운동을 도입 소개한 김기림(金起林)의 이론과 시작에 영향을 받고 “시는 회화(繪畵)다”라는 모더니즘

의 시론을 실천했다.

도시적 소재와 공감각적(共感覺的) 이미지를 즐겨 사용했으며, 이미지의 공간적인 조형(造形)을 시도한 점 등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시집으로 《와사등(瓦斯燈)》(1939) 《기항지(寄港地)》(1947)가 있다. 6·25전쟁 후에는 실업계에 투신, 문단과는 거의 인연을 끊었으며, 제2시집 이후 10여 년 만에 문단 고별 시집 《황혼가(黃昏歌)》(1969)를 출간했다.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다.  
애기 앉던 방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한 밤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서 애기가 웃는다.  
애기는 방 속을 들여다 본다.  
들 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먼 들길을 애기가 간다.  
맨발 벗은 애기가 울면서 간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자식 잃은 비통한 심경을 간결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 더욱 가슴이 저리다. 은수저는 장수, 행복, 건강, 안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식은 없고 은수저만 놓여있으니 은수저와 자식의 죽음은 팽팽한 반어적 의미를 조성하기에 충분하다. 자식의 부재와 은수저에 고인 눈물, 죽은 자식에 대한 환상, 안타까운 부정(父情)으로 이 시의 시상은 전개되고 있다. 화자는 저녁 밥상에 놓인 주인없는 은수저를 통해 아이의 부재를 확인한다. '저무는 산'과 '잠기는 노을'을 통해 소멸 내지 하

충북 옥천(沃川) 출생. 서울 휘문고등  
보통학교를 거쳐, 일본 도시샤[同志社]  
대학 영문과를 졸업했다. 귀국 후 모교  
의 교사, 8·15광복 후 이화여자전문 교  
수와 경향신문사(京鄕新聞社) 편집국장  
을 지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순수  
시인이었으나, 광복 후 좌익 문학단체에  
관계하다가 전향, 보도연맹(報導聯盟)에  
가입하였으며, 6·25전쟁 때 북한공산  
군에 끌려간 후 사망했다.



▲ 정지용

1933년 《가톨릭 청년》의 편집고문으로 있을 때, 이상(李  
箱)의 시를 실어 그를 시단에 등장시켰으며, 1939년 《문장(文  
章)》을 통해 조지훈(趙芝薰)·박두진(朴斗鎭)·박목월(朴木月)  
의 청록파(靑麓派)를 등장시켰다. 섬세하고 독특한 언어를 구사하  
여 대상을 선명히 묘사, 한국 현대시의 신경지를 열었다. 작품으  
로, 시 《향수(鄉愁)》 《압천(鴨川)》 《이른봄 아침》 《바  
다》 등과, 시집 《정지용 시집》이 있다.

강의 이미지를 제시하며, 아이의 은수저를 통해  
부정(父情)을 강하게 확대시키고 있다. 이어서  
한 밤중에 창으로 불어드는 바람을 통해 아이의  
부드러운 웃음과 방긋 웃는 얼굴을 감지하는 환  
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먼 들길'로 표현되  
는 죽음의 세계로 아이는 '맨발'로 울면서 가  
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불러보지만 아이는 대답  
이 없다. 아이는 이제 이승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화자  
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김광균의 이 시에 앞서 정지용 역시 1930년  
조선지광 89호에 [유리창1]을 발표하여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애상적 정조(情調)를 드러내고  
있다. 남명의 [상자(喪子)]나 김광균의 [은수저]  
보다 감정이 더욱 절제되어 있어 또 다른 감동  
을 주기에 충분하다.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 갔구나!

정지용의 시풍은 참신한 이미지의 추구하고 절  
제된 시어의 선택에 있다. 이 시에서는 죽은 자  
식에 대한 그리움을 극도의 절제된 감정을 비정  
하리 만큼 차갑게 표현하고 있다. 유리창에 가까  
이 서서 죽은 아이를 생각하는 화자는 창 밖 어  
둠의 세계로 날아가 버린 어린 생명의 모습을  
한 마리의 가련한 '새'로 형상화하여 '차고 슬  
픈 것이 어른거린다'고 말하고 있다. '밀려나가  
고 밀려와 부딪히는 어둠'은 화자의 어둡고 허  
망한 마음과 조응(照應)이 되고, '물먹은 별'이  
라는 표현은 별을 바라보는 화자의 눈에 눈물이  
어려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이 시에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와 같은 관형어의 모순 어법은 독  
특한 표현이다. '외로운' 심사는 자식이 죽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거니와 '황홀한' 심  
사는 유리창을 닦으며 보석처럼 빛나는 별에서  
죽은 아이의 영상을 볼 수 있다는 데 기인한 것  
이라 하겠다.

다시 남명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차산의 죽음  
과 관련한 구비설화도 있다. 구비설화는 앞서 제  
시한 문헌설화와 달리 민중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어 중요하다. 민중은 이들 이야기를 통해 그들  
의 관심사와 그들의 삶을 말하고자 한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차산의 이야기를 검토해보자.

남명에게는 차산(次山)이라는 도술(道術)을  
잘 부리는 아들이 있었다. 이 차산의 도술은 바  
람과 비를 부를 뿐만 아니라 신출귀몰하여 서산  
대사(西山大師)도 차산의 도술을 능가하지는 못  
했다.

이처럼 아들이 도술에 뛰어난 것을 보고 남  
명은 차산이 혹시 도술을 남용하여 세상을 그르  
칠까 염려하여 산해정 뒷산에 굴을 파고 감금하  
였다. 굴에 갇힌 차산은 때에 맞춰 먹을 것을 주  
는데도 불구하고 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온갖  
피를 다 썼다. 그가 탈출하기 위하여 힘을 쓸 때  
마다 산이 부풀어 올랐다고 한다.

차산이 죽자 그가 묻힌 산을 그의 이름을 따  
서 조차산(卽次山), 혹은 차산등이라고 하며, 돛  
대산이라고도 한다.

이는 조차산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불러  
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니, 지명유래전



설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식에 대한 남명의 엄격한 교육, 차산의 대단한 능력, 차산의 요절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두루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남명의 엄격한 교육은 감금을 통해 알 수 있다. 비람과 비를 부를 뿐만 아니라 신출귀몰한 도술을 부리니 남명이 세상에 잘못 쓰일까를 걱정한 조치였다. 차산의 대단한 능력은 도술로 알 수 있다. 당대 도술로 가장 이름이 있었던 서산대사와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차산의 요절에 대한 안타까움은 전승 민중이 산 이름과 관련한 전설을 만들어냈다는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다. 조차산 설화는 기본적으로 다음에서 제시하는 아기장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기장수 이야기의 의미단락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옛날 어느 곳에 한 평민이 살았는데, 산의 정기를 받아서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고 태어나자 이내 날아다니는 장사 아들을 낳았다.
- ② 그런데 부모는 이 아기장수가 크면 역적이 되어서 집안을 망칠 것이라고 하여 아들을 돌로 눌러 죽였다.
- ③ 아기장수가 죽을 때 유언으로 콩 닳섬과 팥 닳섬을 같이 묻어 달라고 하였다.
- ④ 얼마 후 관군이 와서 아기장수를 내놓으라고 하여, 부모가 이미 죽었다고 하면서 무덤을 가르쳐 주어서 가 보았더니, 콩은 말이 되고 팥은 군사가 되어 아기장수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관군이 성공 직전에 다시 죽였다.
- ⑤ 그 후 아기장수를 태울 용마가 근처의 용소에서 나와 주인을 찾아 울며 헤매다가 용소에 빠져 죽었다.
- ⑥ 지금도 그 흔적이 있다.

아기장수는 태어나 며칠이 되지 않아 두 번 죽임을 당한다. 첫 번째 죽음은 무정한 보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②'가 그것이다. '역적이 나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③'과

같이 재기를 시도해보지만 관군에 의해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한다. '④'가 그것이다. 관군이 아기장수를 다시 죽인 것은 역적으로부터 통치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서 죽은 아기장수 이야기와 관련된 흔적이 '⑥'과같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기장수 이야기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아이를 낳은 부모가 나라를 어지럽힐 것을 염려하여 그 아이를 죽였는데, 이와 관련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것은 조차산 이야기와 일치되는 부분이다. 즉 도술에 뛰어난 차산을 남명이 장차 나라를 어지럽힐 것을 염려하여 감금해 죽였는데, 그 흔적이 조차산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두 이야기의 기본구조가 같다고는 하나 조차산 이야기는 아기장수 이야기와 같이 극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그것은 '①'에서 보듯이 부모가 평민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아기장수 이야기는 통치자와 평민이라는 상, 하의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졌지만 조차산 이야기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③', '④', '⑤'가 생략될 수밖에 없었고, 용마의 이야기도 없어 '⑥'이 있기는 하나 산이 되고 말았다. 결국 아기장수의 죽음이 관군으로 상징되는 통치질서에 근원하고, 조차산의 죽음이 나라를 그르칠 것을 염려한 때문이니 이들의 죽음은 개인적인 것이라기 보다 국가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차산의 아버지 남명이 처사라고는 하나 양반계층에 소속되어 있으며, 차산 역시 병을 얻어 요절한 역사적 인물이니 그 이야기가 왜소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차산의 죽음을 아쉬워 한 민중의 뜨거운 가슴은 이 이야기를 통해 충분히 감지하게 된다.

차산은 남명과 그의 아내 남평 조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남명은 조씨 부인과 1522년에 혼인하게되는데, 당시 그의 나이 22세 부인의 나이 23세였다. 부인은 충순위(忠順衛) 조수(曹瑒)의 따님이었는데, 남명은 그의 아내를 공경하여 손님처럼 대하였다 한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남명은 아내 남평 조씨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다. 하항(河抗, 1546-?)이

'아내가 눈을 흘리고 뜻을 거스르므로, 마침내 떠나서 몇 해를 떠돌아다니다가 비로소 측실을 얻어 토동에 살았다'고 하거나, 정인홍(鄭仁弘, 1535-1623)이 '선생이 비록 아내와 사이가 좋지 못했으나 종신토록 은의(恩義)를 끊지는 않았다'는 기록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남명은 조씨 부인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게 되는데 늦게 본 외아들은 위에서 보았듯이 그가 44세 되던 해에 9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딸은 만호(萬戶) 김행(金行)에게 시집을 가서 두 딸을 낳는데, 이들은 각각 김우옹(金宇顛, 1540-1603)과곽재우(郭再祐, 1552-1617)에게 시집을 간다.

남명의 아내 남평조씨 부인의 묘소는 산해정의 안산(案山)이 되는 조차산 기슭 오미등에 그의 딸의 묘와 나란히 있다. 부인은 남명보다 3년 앞서 죽게 되는데, 그 때 그녀의 나이 69세였다. 장지를 정하고 남명의 명으로 비를 세웠으나 왜란에 부숩졌다. 그 후 300여년이 흐른 뒤 조용상(曹庸相)이 김택영(金澤榮, 1850-1927)에게 증봉정경부인남평조씨묘갈명(贈封貞敬夫人南平曹氏墓碣銘)이라는 글을 받아 1915년에 새로 세웠다. 그러나 이 비마저 사라져버린다. 이는 조유인(曹由仁)으로부터 남평 조씨가 창녕 조씨 창평파(昌平派)에 편입되는 등 문중의 사정에 말미암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택영은 조씨 부인의 묘갈명에서 창녕 조씨와 남평 조씨는 그 본

관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 당시 논란이 되었던 남명의 동본혼인설(同本婚姻說)을 일축하는 한편, 남명이 벼슬에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인의 음덕이었다는 것도 힘주어 말했다.

남명의 산해정 시절은 산과 같이 높고 바다 같이 넓은 학문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그의 삶은 대단히 고달팠다. 그야말로 재난의 시대를 살았다. 사랑하는 외아들 차산이 여기서 죽었고, 아내와도 불화를 거듭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아내의 도움으로 산해정을 짓고 사는 이곳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집도 없고 아들도 없는 게 중과 비슷하고, 뿌리도 꼭지도 없는 이내 몸 구름 같도다.'며 슬퍼하였던 것이다. 집이 있으나 자신의 집이 아니고 아들마저 죽었으니, 그의 의식은 떠돌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45세(1545년)되는 10월에는 을사사화가 일어나 절친했던 친구 이림, 성우, 곽순, 이치 등의 부음을 듣게 된다. 또한 11월에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신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기 위하여 김해에 왔으니 남명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묘소 동쪽에 어머니를 안장하고 고향인 합천에서 혁신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과거의 무거운 껍질을 벗어 던지고 싶었던 것이다. **敬義**

▼ 남평조씨부인 묘소



차산은 남명과 그의 아내 남평 조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남명은 조씨 부인과 1522년에 혼인하게 되는데, 당시 그의 나이 22세 부인의 나이 23세였다. 부인은 충순위(忠順衛) 조수(曹瑒)의 따님이었는데, 남명은 그의 아내를 공경하여 손님처럼 대하였다 한다 ...

남명의 아내 남평조씨 부인의 묘소는 산해정의 안산(案山)이 되는 조차산 기슭 오미등에 그의 딸의 묘와 나란히 있다. 부인은 남명보다 3년 앞서 죽게 되는데, 그 때 그녀의 나이 69세였다 ...

- 본문중에서 -

## 감기(感氣)

홍 승 현 한약사, 원광대 강사

한동안 봄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지나갔다. 겨울 한철 용하게 잘 넘어갔던 사람들도 추위가 다 지나간 마당에 한바탕 호된 감기로 고생하면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감기란 것이 꼭 추워서 걸리는 것만은 아닌가 보다. 남극 대륙에서 활동하는 과학자들은 그 추운 곳에서도 감기는 모르고 산다고 한다. 언뜻 생각해보면 남극처럼 추운 곳에서는 감기를 달고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라니 신기한 노릇이다. 감기는 가장 흔하게 앓는 병이면서도 잘 모르는 병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감기에 대한 몇 가지 상식을 살펴보자.

감기(感氣)라는 단어의 한자표기를 가만히 보면 재미있다. 기(氣)에(또는 기를) 감(感)하다. 기(氣)란 용어는 참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그만큼 그 뜻이 모호하기도 하다. 필경 감기에서 말하는 기는 좋은 기는 아닐 것이다. 좋은 기에 감(感)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할 리가 없지 않은가. 옛날 동양에서는 사

기(邪氣) 즉 사악한 기(氣)라는 것이 있다고 믿었고 외감성 질환의 주된 원인은 이 사기라고 보았다. 우리 몸은 이러한 외부의 사기에 저항하기 위한 기(氣), 이른바 정기(正氣)가 있어 평소 외감성 질환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몸의 정기가 외부의 사기 즉 외사(外邪)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외사가 몸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고 마침내 외감성 질환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된 상태가 기(氣)에 감(感)한 상태 즉 감기라고 보면 그다지 틀림이 없다.

오늘날의 지식으로 보면 감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그런데 감기에 대한 오늘날의 설명을 살펴보면 옛날의 그것과 그다지 다르지가 않다. 감기 바이러스를 비롯한 온갖 미생물은 우리가 접하는 외부 공기나 음식물 등에 항상 존재한다. 그렇지만 우리 몸의 면역기능은 평소에는 이러한 미생물로부터 몸을 잘 보호 해준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그 면역기능이 인체에 침

입한 외부 미생물의 창궐을 감당해 내지 못하면 몸은 병을 앓게 된다.

왜 일반적으로 추우면 감기에 잘 걸린다고 믿고 있고 또 실제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감기에 잘 걸리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겠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한두 가지만 들어보자. 그 하나는 온도와 습도와 의 관계다. 온도가 내려가면 대기 중에 함유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고 따라서 공기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상태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실내에 히터를 작동시키면 공기는 더욱 건조해진다.) 건조한 공기 속에 있는 먼지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이 호흡할 때 습한 상태에 있는 것에 비해 코털 등을 비롯한 상기도의 여러 장애물들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더구나 건조한 공기는 인체의 기도내부를 건조하게 하여 한번 부착된 외부 유입 이물질의 배출도 곤란해진다. 이러한 조건은 평상시 이상의 외

부침입자가 상기도 부위에 모여 있게 하고 이것은 곧 감기라는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 외에 체온의 저하에 따른 신체조건 변화도 추위와 감기의 상관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그런데 왜 남극대륙에는 감기가 없는지 궁금해진다. 그것도 기온과 관계가 깊다고 한다. 미생물들도 자신들이 살아남고 번식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극은 감기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조건이란 것이다. 따라서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없고, 감기의 원인이 없으니 감기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한의학에서는 기후와 연관지어 감기를 설명 할 때는 크게 풍한(風寒) 감기와 풍열(風熱) 감기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다. 여름에서 가을로 또는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길은 차가운 사기(邪氣) 즉 한사(寒邪)에 노출되기 쉽고 따라서 풍한감기에 걸리기가 쉽다고 본다. 한편 겨울에서 봄 또는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는 열사(熱邪)에 노출되기 쉽고 그에 따라 이른바 풍열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두 경우 모두 온도와 습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오늘날의 지식과 일치시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제 곧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설 시점이다. 오뉴월 감기는

개도 걸리지 않는다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여름의 에어컨이나 겨울의 히터와 같은 인공적 냉난방 기기는 계절의 질서를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하루에도 여러 번 계절차 이상의 기온 변화를 경험하게 만들고, 또 역으로 계절이 바뀌어도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여름에도 한사(寒邪)에 위협받고 겨울에도 열사(熱邪)에 노출되는 헛갈리는 세월이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현대인들은 의약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감기로 고통받는 지도 모른다. 이제 자연의 순리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는 불가능해진 것일까. 歌美



2002. 문화관광부 선정 지역민속축제  
『남명 선비문화축제』



2002년 8월 17일 ~ 18일  
덕천서원 산천재 일원

◆ 주최 : 산청군, 덕천서원      ◆ 주관 : (사)남명학연구원

## 2002 선비문화축제

### I. 취지

우리는 2001년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선비문화축제를 '남명정신이 경남정신의 뿌리' 라는 구호아래 성공리에 치렀다. 그 결과 남명학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정부로부터 지역민속축제로 지정받았다.

올해에도 경상남도 및 산청군의 적극적 후원 아래 선비문화축제를 내실 있게 거행함으로써 남명정신을 선양하고 관광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기념사업의 기본방침

1. 선비문화축제를 감동적, 역동적인 발전사업으로 육성한다.
2. 선비정신과 의병정신을 재현하되 차별화되고 미래지향적 행사를 계획한다.
3. 경남인의 공동체 정신을 결집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전국화에 노력한다.
4. 젊은층의 공감과 동참을 얻을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한다.
5. 남명사적지의 교육장화·관광지화에 주력한다.

### III. 기념사업 추진 조직

- 주 최 : 산청군, 덕천서원
- 주 관 : (사)남명학연구원(집행위원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진주시, 김해시, 합천군, 의령군,
- 협 찬 : 남명학회(서울대학교),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국립진주교육대학교, 남명학 부

산연구원, 남명선양회, 경남사립중·고교교장회, 성균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신문, 부산일보, 경남일보, 울산매일, KBS창원방송총국, 마산문화방송, 진주문화방송, PSB부산방송

### IV.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02. 8. 17~18
2. 장소 : 덕천서원, 산천재 일대

### V. 선비문화축제 행사계획

#### 1. 사전행사(강연회)

- 일 시 : 2002년 중
- 대 상 : 공무원, 민방위대원 등 약 18만명
- 내 용 : "남명정신과 경남도민"

#### 2 주요행사

- ◇ 남명학 심화를 위한 학술회의 개최
- ◇ 남명정신의 대중화를 위한 행사  
- 서사극, 의병출정식, 의병출정놀이, 사생대회, 대학생 지리산 등반대회, 기타 전통문화행사
- ◇ 남명사적공원조성

#### 1) 서사극 공연

- 제 목 : "선비정신의 표상-남명"
- 제 작 : 밀양 연극촌
- 연 출 : 이운택
- 장 소 : 덕천서원 특설무대

2) 의병출정식

□ 취 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남명 선생의 제자 50여명이 스승의 뜻을 실천코자 창의를 업적을 기리고, 한 선비의 교육적 효과가 얼마나 지대한 것인지를 보여 주며, 의병출정식을 재연함으로써 남명 정신을 후손들이 계승코자 한다. 올해의 선비문화축제는 의병출정식을 중심으로 짜여진다.

□ 주요내용

- ① 거리극 : 주요 의병장을 배우들이 재현한다. (무술시범, 승전기원 검무 등)
  - ② 의병 출정식 서막 공연 : "천년의 소리"(온누리 예술단)
  - ③ 불꽃놀이 : 의병출정장도를 축하하는 불꽃놀이
  - ④ 출정 고유제(告由祭)
  - ⑤ 출정결의문 낭독
  - ⑥ 남명선생 혼불지피기
  - ⑦ 승전기원 달집지피기
  - ⑧ 의병출정 열병·분열
  - ⑨ 뒤편이(대동놀이) : 사물놀이
- 참 여 : 출연진, 풍물놀이패, 청소년 사적지 답사단, 연원가 후손 등
- 장 소 : 덕천서원 앞 도로일대
- 대도구 : 신명사도(神明畵圖), 남명혼불대, 달집
- 소도구 : 창, 칼, 깃발, 북, 횃불, 장수목, 의병복장 300벌

3) 남명제

4) 의병 출정놀이

□ 취 지

선열들의 의병출정 정신을 기리고 당시 의병들이 연마했거나 전래되어 왔던 독특한 무술들을 발굴하고 당시 문화생활과 풍류를 후손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선조들의 강건한 신체와 청명한 정신을 엿보고자 한다.

□ 내 용

- ① 태권 ② 타악기 페스티벌
- ③ 한국전통무술대회 ④ 시조창과 양반춤

⑤ 묘기대행진

□ 장 소 : 덕천서원 특설무대

5) 대학생 지리산 등반대회

□ 취 지

남명선생은 지리산에 열두 번 등반했다고 한다. 전국 대학산악부 학생들이 지리산 종주의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남명선생의 기상을 되새기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 일 시 : 8. 15~17(2박 3일)

□ 주 관 : 경남일보

6) 어린이 사생대회

□ 취 지

경상남도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남명선생에 관한 사생대회를 산천재 일대의 사적공원에서 개최함으로써 어린이 마음에 남명정신의 핵심을 터득케 하고 사적공원의 완성을 염원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학부모참석권장)

□ 주 관 : 한국학원총연합회 진주분회

□ 장 소 : 산천재 일대

7) 청소년 남명 사적지 답사

□ 일 시 : 2002. 8. 16. ~ 8. 18.(2박3일)

□ 취 지

관련 유림 및 의병후손과 고교생들이 남명 및 의병 사적지를 탐방하여 남명정신을 터득하고, 의병출정식 행사에 동참함으로써 애국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 사적지 : 김해 산해정(현 신산서원) → 의령 충의사 → 합천 뇌룡정 → 진주 진주성 → 산청 산천재 → 덕천서원

□ 인 원 : 약 300여 명

8) 기타 전통문화행사

- ① 서예전시회
- ② 시조경창대회
- ③ 한시백일장
- ④ 소리바다 공연

9) 특산품 판매 및 민속장터 운영

# 『南冥學研究論叢』投稿規定

## 審査 및 掲載規定

### 投稿規定

本院에서는 南冥學 研究의 振興을 위하여 매년 2회(6월 말과 12월 말) 『南冥學研究論叢』을 刊行하고 있습니다.

論叢編輯委員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編輯方針을 定하고, 研究者 여러분의 積極적인 參與를 기다립니다.

#### 1. 掲載 範圍

南冥學 및 南明학과에 關聯된 主題에 關한 論文

#### 2. 原稿 分量

200자 原稿紙 기준 150매 内外

#### 3. 投稿 方法

- 1) 소정의 「研究計劃書」를 작성하여 本院에 제출한다.
- 2) 常任研究委員會에서 「연구계획서」를 審議하여 研究 委囑與否를 결정한다.
- 3) 채택된 「연구계획서」에 대해서는 소정의 研究費 中 절반을 着手金으로 지급한다
- 4) 執筆 완료 후 해당 디스켓(E-메일도 可함)과 출력된 원고 2부를 本원에 제출한다.
- 5) 「연구계획서」 제출 없이 投稿한 경우에는 별도의 審査를 한다.

#### 4. 論文 投稿時 遵守事項

- 1) 사용 가능한 워드프로세서는 훈민정음 95 이상, HWP 3.0 이상의 버전이나 또는 이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이며, 최종 提出本의 경우에는 原稿와 디스켓(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論文題目 및 投稿者의 姓名, 所屬, 住所, 電話 番號 등은 別紙에 따로 作成하여 提出한다.
- 3) 本文 글자체는 신명조 10포인트로 작성한

다.

- 4) 논문 제출시에는 200자 원고지 2매 이내의 국문 초록과 10개 내외의 주제어(keyword)를 제시하여야 하며, 논문의 끝에는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고 영문 제목을 달아야 한다.
- 5) 註는 脚註를 原則으로 하며 反괄호[예: 1)]를 사용하고, 글자체는 신명조 9포인트로 作成한다.
- 6) 參考文獻을 表記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른다.

① 東洋文의 경우 論文名은 「 」로, 書名은 『 』로 표기한다.

② 西洋文의 경우 論文名은 " "로 묶고, 著書 및 刊行物名은 이탤릭체나 밑줄로 표시한다.

③ 여러 卷의 著書나 論文을 함께 表記할 때에는 단락을 나누지 말고 이어서 쓰고, ' ; ' 부호로 연결한다.

- 7) 기타의 사항은 一般的 論文作成 요령에 따른다.

#### 5. 掲載 方法

- 1) 『南冥學研究論叢』 審査 및 掲載規定에 따른다.
- 2) 掲載가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研究費 中 나머지 절반의 金額을 지급한다.

#### 6. 接受處

- 景南 진주시 봉곡동 14-21(2F)  
 사단법인 南明학연구원 (우) 660-040
- 전화 : (055) 748-9147
- E-mail : ionms@nammyung.org

**審査 및 掲載規定**

- 『南冥學研究論叢』은 毎年 6월 말과 12월 말에 刊行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 호 발간일 2개월 전까지 接受된 投稿 論文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 審査委員은 編輯委員(南冥學研究院의 院長을 포함한 常任研究委員)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 編輯委員會에서 그 필요성을 認定한 研究分野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의 專政者에게 특별히 연구를 委囑할 수 있다.
- 게재 논문은 본 연구원에서 매년 4월에 개최하는 연구위원회나 또는 매년 8월에 개최하는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하여 검증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투고된 論文은 1편에 해당분야 전공자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소정의 「論文檢討意見書」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3等級(게재, 수정게재, 게재 부적합)으로 심사 分類하고, 여기서 2인 이상에게 게재 판정을 받은 것만을 게재 대상으로 한다.
- 심사결과 掲載對象이 된 논문이라도 편집위원의 평가에 따라 내용의 修訂·補充·縮小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해당 논문의 게재 順序는 編輯委員會에서 별도로 정한다.
- 심사결과 게재 대상이 된 논문이라도 해당 號의 編輯分量을 超過할 경우에는 다음 號에 게재할 수 있다.



■ 남명학회 춘계학술강연회 및 남명학보 창간호 발간 기념식

지난해 남명 탄신 500주년을 기념하고 남명선생의 인물과 사상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적극적이고 전국적인 규모에서 심층적이고 계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족한 남명학회(회장 李楠永, 서울대 교수)에서 4월 12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대강당에서 춘계학술강연회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원광대 명예교수인 劉明鍾 교수의 南冥思想과 退溪·栗谷이란 제목의 강연회가 있었고, 아울러 南冥學報 創刊號의 발간 기념식이 있었다.

창간호에는 일반논문으로 李東勲 교수의 南冥思想과 그 現代的 意義, 李遠碩의 南冥 出處觀의 哲學的 根據, 嚴連錫의 남명 역학사상의 본체론적 계기와 실천론적 의미가 실렸고, 제 1 회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으로 李成茂의 南冥 曹植의 생애와 사상, 樓宇烈의 篤學力行, 修道進德, 楊祖漢의 南冥論 「下學而上達」, 鄭家棟의 南冥與性理學, 尹絲淳의 天人關係에 대한 南冥(曹植)의 사상, 姜信杓의 南冥의 「學記圖」에 나타난 韓國의 傳統文化文法, 南明鎭의 남명

주역판의 특징에 관한 연구, 琴章泰의 南冥의 心개념과 「神明舍圖」의 구조, 李光虎의 南冥과 退溪의 상호비판과 응답이란 논문이 실렸다. 이날 우리 연구원에서는 45 명이 다녀왔는데, 조옥환 부이사장이 관광버스와 식사, 간식을 제공하였다.



## ■ 德川書院 敬義堂 보수공사

산청군이 사적 제 305 호로 지정된 ‘조식유적’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덕천서원 강당인 경의당 기와를 80 여년 만에 교체하고 있다. 덕천서원은 남명선생의 학덕을 기리는 상징적인 곳으로 그동안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참배객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다주었다.



이번 덕천서원 보수는 좌측칸(방)은 도리 이상 해체 보수하는 것을 비롯해 문짝 틈마루 등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것이다. 특히 경의당의 건물이 동쪽으로 3~4도 기울어져 붕괴위험이 있다는 판단아래 이번 보수공사 때 바로 세우게 된다. 한편 이 보수공사는 7월중으로 마쳐 8월 남명선비문화축제의 장소로 활용될 것이다.

● 소 식 ●

## ■ 선비정신의 표상 - 남명조식 전국순회공연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선비문화축제의 일환으로 기획된 시골선비 조남명이 3월 18일 마산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경남지역 등 전국순회공연에 나섰다. 18일 마산MBC홀 공연을 시작으로 22일부터 서울로 무대를 옮겨 서울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4월 7일까지 공연했다. 특히 서울공연에서는 연극 배우 손숙, 신구 등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배우들이 문정왕후, 윤원형 등의 역을 맡아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연극을 만들었다.

이어 4월 12~13일 부산 문화회관 중강당 무대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4월 27일 삼가초등학교, 5월 10일 사천공연을 하고, 오는 10월안에 경남 일원을 순회공연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프랑스 파리 등 미주와 유럽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 연극은 지난해 2001 서울공연예술제의 연극 부문에서 대상, 연출상, 남자연기상, 음악상 등 4개 부분의 대상을 석권한 바 있다.



## 남명학파 관련 유물 / 유품 / 고문헌 기증 또는 위탁관리 의뢰

국비와 경상남도비, 산청군비 등 약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천재 일원에 유물 전시관 겸 교육관을 금년 중에 완공하기로 함에 따라, 유물 전시관에 전시하게 될 유물 및 고문헌의 기증 또는 위탁관리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 기증 또는 위탁관리 의뢰 품목

남명학파 관련 고문헌

남명선생 또는 문인, 사숙인과 관련한 유물, 유품

▶ 기증 또는 위탁 시 관리요령

본 연구원에 기증 또는 위탁관리를 의뢰하고자 하시는 개인, 단체, 문중 등의 명단을

영구보존하며 유물 전시관에 전시함

▶ 기증 또는 위탁 요령

기증 또는 위탁관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경우 본 연구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라도 직접 찾아뵙고 상담하며, 기증 또는 위탁에 필요한 제 경비는 본 연구원에서 부담함

☆ 연락처

진주시 봉곡동 14-21 (사) 남명학연구원

전화 : 055) 748-9147, 9148

팩스 : 055) 748-9152

전자우편 : ionms@nammyung.org

홈페이지 : www.nammyung.org

## ◇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연구계획서 양식 ◇

◆ 본 연구원에서는 『남명학연구논총』에 게재할 논문(200자 원고지 150매 기준)을 수시로 접수합니다.

◆ 『남명학연구논총』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른쪽의 연구계획서(A4용지규격)를 작성하여 본 연구원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연구계획서 양식은 본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심사 후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합니다.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연구 계획서			
성명			소속
주소	자택	전화	
	직장	전화	
논문 제목			
목차			
연구개요			
주요 참고 문헌			
연구시작시점		논문완성예정시점	
20년 월 일		20년 월 일	

## 남명학연구원 회원가입 신청서

본인은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회비 :2만원/ 연구원 간행책자 및 원보 우송)

성명	(한글)	본관		연원관계	
	(한자)	생년월일		약력	
주소	(주택)			전화	
	(직장)			전화	

# 각종 우편물을 받으실 주소 뒤에(우편)이라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이사장 귀하

경남 진주시 봉곡동 14-21 (2F) / 전화 (055) 748-9147~8 / 팩스 (055) 748-9152  
 계좌번호 : 우체국 : 610774-01-004728 남명학연구원  
 농협 : 803-01-367374 남명학연구원  
 국민은행 : 652-01-0491-776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경남은행 : 524-07-0081228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 본원 사무국 양기석 국장 선임

양기석 사무국장은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와 동 대학원(한문교육전공)을 졸업하고, 국사편찬위원회 국내사료과정(초서전공)을 수료했으며,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조교, 진주문화원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남명학의 연구와 남명정신을 선양하는 우리 남명학연구원의 실무를 맡았으나,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구원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지도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  
 660-040 경남 진주시 봉곡동 14-21  
 전화 (055) 748-9147~8  
 팩스 (055) 748-9152

**INSTITUTE OF NAM-MYUNG STUDIES**  
 # 14-21 BONGGOK-DONG, JINJU,  
 KYUNGNAM 660-040, KOREA  
 TEL: 055-748-9147~8 / FAX: 055-748-9152

INTERNET HOMEPAGE : <http://www.nammyung.org> / E-mail : [ionms@nammyung.org](mailto:ionms@nammyung.org)

## 산청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양 차 정

본소 :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68-4

Tel : (055)973-6430~6439

조	장	양	차	정
상	사	박	총	기
임	사	오	성	경
이	사	김	상	천
이	사	김	병	오
이	사	민	병	훈
이	사	곽	덕	경
이	사	김	손	호
이	사	이	전	희
이	사	이	덕	용
이	사	강	상	범
이	사	김	효	상
감	사	이	상	범
감	사	박	찬	영

<http://www.nscf.co.kr>



RPC :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461-1

Tel : (055)973-4807~8

2002 문화관광부 선정 지역민속축제

500+1  
남명선생 탄생 501주년

# 선비문화축제

The 501st  
Anniversary of  
Master Nam Myeong  
Jo Shik's birth

敬  
義



남명  
曹植

2002.8.16~8.19

남명제 2002.8.18 09:00

주최: 산청군, 덕천서원

주관: (사)남명학연구원

후원: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진주시, 김해시, 합천군, 의령군

협찬: 서울대남명학회, 경상대남명학연구소, 국립진주교육대학교, 남명학부산연구원, 남명선양회, 경남사립중·고교 교장회, 성균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상남도유도회,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경남신문사,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산경남매일, 울산매일, KBS창원방송총국, MBC마산문화방송, MBC진주문화방송, PGB부산방송

